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의령 태풍대비 사전점검

김영찬기자 | 승인 2023.08.09 16:46 | 11면

의령군 서암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 사전 점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9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남해안 상륙에 앞서 의령 서암저수지를 방문해 배수시설 사전 정비 등의 대비상황을 확인 점검했다.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에 위치한 서암저수지는 의령 관내에서 3번째로 크며 가례면과 의령읍 일대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이병호 사장은 태풍 대비를 위한 배수장 가동현황 및 시설물 점검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마와 이어지는 무더위 속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점검에 힘써주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를 방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병호 사장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농작물과 농업기반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 직원, 수리시설감시원,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